

# 청소년주의와 세대 신화\*

원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노명우\*\*\*\*

(아주대학교 교수)

---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들은 '청소년주의'라는 뜻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 집단을 단일한 특성을 지닌 연령 집단으로 보는 가정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 집착은 청소년을 성인 세대와 대당으로 놓는 경향으로 연장된다. 이어 세대 논쟁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물론 이 같은 분류 혹은 대당은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다. 대중매체의 성장으로 인해 청소년 세대의 문화가 획일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일면 정당성을 가지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공동체를 통해 동일 정체성을 가질 가능성도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하지만 청소년 집단이 성인기에 진입한 후 동맹집단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 집단을 세대 집단으로만 한정짓기에는 청소년을 내부로부터 구별지어주는 명백한 변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부모의 계급이나 청소년들의 성별 등에 주목하지 않고서는 청소년 집단의 내부적 차이, 그들의 '구별 짓기' 등을 설명해낼 수가 없다. 청소년주의라는 뜻은 연구자가 오류를 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소외시키는 신화적 효력을 내게 된다.

주제어: 청소년주의, 세대, 구별 짓기, 청소년문화

---

\*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B 00215).

\*\* yongjin@sogang.ac.kr

\*\*\* sangyeun65@naver.com

\*\*\*\* mwnho@naver.com

## 1. ‘청소년주의(youthism)’

‘종말’을 주장하는 연구 서적이거나 논문들은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눈에 띄이는 제목 탓에 상당한 주목을 끌기도 한다. “역사의 종말” “이데올로기의 종말” “서구 문명의 종말” 등이 그 내용과 관계없이 오래 기억되는 것도 그런 탓이다. 청소년과 관련해서도 ‘종말’ 개념을 포함시켜 관심을 끄는 연구 경향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너무 빨리 성장하여 청소년기가 생략된 채 성인 세계로 접어들음을 우려하거나, 현재의 청소년은 과거 청소년과는 전혀 다른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종말이라는 말은 종종 사용된다. 자극적인 용어로 관심을 끌어들인 그 작업들은 이동기, 청소년기의 종말을 대중매체와 연관 짓는다. 어떤 이들은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을 조속하게 만든다며 우려한다. 다른 이들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과거의 청소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들이 등장했다며 청소년기의 종말에 대해 언급한다. 그 어느 편이든 청소년과 대중매체를 연관 짓는 일에 익숙해 있고, 그 관계를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1970년대 이후부터 등장하는 문화연구의 하위 문화연구 등은 청소년 내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에 입각해 청소년들의 구별 짓기를 연구해냈다. 하지만 이들 외 청소년 연구들, 대중매체와 청소년 관계 연구들은 청소년을 한 묶음을 보는 경향성을 보여 왔다. 청소년과 대중매체 관련해서 주목을 받는 저서들도 그 같은 지적에서 크게 비켜가지 않는다. 국내의 청소년 연구들이나 청소년 정책에서도 이 같은 경향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버킹엄(Buckingham)은 이 같은 청소년과 대중매체 관계 규정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는 대중매체가 청소년기를 부정적으로 종말 시킨다는 입장을 ‘보호주의’로 파악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성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새로운 매체를 상요하고 있다고 파악하는 입장을 경향을 ‘낙관주의’라 명명하였다(Buckingham, 2000). 버킹엄은 청소년과 대중매체를 논의하며 청소년 문화를 정리하는 많은

저서, 연구 들은 이 같은 두 입장 중 하나에 서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이 모두 범하고 있는 명백한 실수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에 따르면 두 연구 집단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엄밀하고도 구체적인 조사를 결여하고 있거나 회피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은 모두 첫째 청소년 내부의 다양성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청소년이 대중매체를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보호주의’와 ‘낙관주의’는 각기 다른 결론에 도달하지만, 청소년 집단에 대해 전제는 유사하다. 이들은 모두 청소년은 공통된 특징을 공유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이처럼 많은 경우의 청소년 관련 연구는 청소년 집단을 단일한 특성을 지닌 연령 집단이라는 가정하는 경향을 띤다(Griffin, 1997: 17). 이같은 가정은 청소년기를 생물학적 발달단계의 한 특성으로 파악하는 전통에서 유래한다. 스탠리 홀(G. Stanley Hall)의 심리학적 분석은 이 같은 가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1904). 그는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로 파악해 청소년기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후 연구자들은 ‘청소년은 시춘기의 공통성을 지닌 연령 집단’이라는 전제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들은 이 가정을 수용했고, 그 결과 이 가정은 청소년 연구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청소년 관련 연구는 청소년의 공통적 특징을 유형화하고, 청소년과 성인의 차별점을 찾거나 확정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정상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데 천착했다. 코헨은 청소년 연구의 이러한 경향을 ‘청소년주의(youthism)’라 명명한다(Cohen, 1997: 183). 코헨은 ‘청소년주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청소년주의는 첫째 청소년을 단일 범주(a unitary category)로 파악하며, 둘째 단일 범주인 청소년은 특정한 심리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셋째 이 시기에 형성된 태도와 가치는 이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넷째 청소년기는 자율적인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므로 반항적이며 이 반항을 통해 전 세대의 문화전통을 변형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청소년주의적 입장은 학문세계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학문 영역뿐 아니라 사회 영역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비증을 갖게 되면서 담론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청소년주의는 청소년을 내부적 차이가 없는 동질한 집단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 그리고 정상성을 지닌 성인과 대비됨으로써 청소년은 보호되고 통제, 훈육될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를 내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낙관주의’ 집단의 담론은 청소년주의에서 벗어나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은 그렇지 않다. 그들 또한 청소년 집단 내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고 청소년을 성인 집단과 단순 대비하고, 청소년의 능동성을 동질적 성향으로 규정하여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내지는 독려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Tapscott, 1998; Rushkoff, 1996).

이 글은 ‘청소년주의’를 문제영역으로 파악하고 그를 계보학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의 사회적 효과를 정리하는 목적을 갖는다. 특히 청소년주의가 세대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청소년은 그 거울에 해당하는 성인과 의 차이 나는 연령 집단으로 규정되는데 과연 그럼으로써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청소년주의’적 입장에 쉽게 수긍하고 그 도식을 따르게 되는 은폐 요소에 찾아보려 한다. 은폐적 요소가 걷어지게 되면 과연 어떤 변인들이 청소년 집단 내부의 차이를 드러내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언급하려 한다. 결국 이 글은 청소년주의의 사회적 효과, 청소년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변인, 그리고 청소년주의를 물리치고 펼칠 수 있는 청소년 정치학의 모습을 그리는 목적을 지닌다.

## 2. ‘청소년주의’ 계보학과 그 효과

‘청소년주의’가 확립되기 이전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과 대비되는 존재일 뿐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다. 성인과 대비되는 그들은 대비되는 만큼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받을 뿐이었다. 아주 어린 나이의 노동자 등장은

상층 계급을 제외한 모든 사회 계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회 현상이었다. 톰슨(Thomson)은 『영국노동계급의 형성(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에서 19세기 초반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어린 아이들의 노동을 이렇게 묘사한다.

“1780년과 1840년 사이에 어린이 노동에 대한 착취의 강도는 크게 증가했으며 자료를 접한 모든 역사가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흔히 강도가 너무 좁아서 어린이들만이 쉽게 지나갈 수 있었던 비효율적인 소규모 탄광의 — 석탄층의 표면이 수갱으로부터 점점 멀어짐에 따라 — 운반꾼으로 이용하거나 환기구를 작동하는데 어린이들이 필요했던 몇몇 대규모 탄광지대 모두에서 사실이었다. 공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노동력은 매년 증가했다”(Thompson, 2000, p. 459).

청소년을 보호하는 근대적 태도에 비추어 보자면 19세기까지 광범위하게 존속했던 어린 아이들의 노동은 비인도주의적 처사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청소년주의 신화의 탄생과 관련해 독해하면 전혀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당시 아동노동의 광범위한 존속은 미성년과 성인 사이에는 지금과 달리 법적 지위의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을 다루는 사회적 관행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미성년은 독립된 보호 및 규율의 대상이 되는 인구집단으로 분리되지 않았던 셈이다. 1821년경까지 영국에서 결혼 허용 연령은 여자의 경우 12세였고, 남자는 14세였다(Rogers, 1997: 9). 청소년 보호 담론이 자리 잡기 이전에는 아동노동으로부터의 해방여부는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이 속한 가족의 계급적 상황에 의해 전적으로 규정되었다. 하층 계급 출신의 청소년은 일반화된 세대 범주로서의 청소년 보호 담론의 대상이 아니었다.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세대로서 취급받지 않았다. ‘사춘기’의 발견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성년 집단과 성인 집단 사이의 확고한 경계는 없었다.

독립된 연령 단계 즉 세대범주로서의 ‘청소년기’의 출현은 산업화 진행에 따라 이뤄진다. 노동력의 질적 상승이 생기고, 직업에 필요한 자질과 숙련

정도가 점점 더 많은 훈련 기간을 요구하게 되면서 출현한다(Hurrelmann, 1999: 29). 별도로 독립된 연령단계로서의 청소년기의 출현은 시민계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독립된 연령단계로서의 청소년의 발견은 빅토리아 시대 중간계급의 산물이었다(Murdock & McCron, 1996: 192). 머독과 맥크론은 유럽에서의 청소년기 발명은 빅토리아 중간계급에서 출현하여 전 사회계층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파악한다. ‘청소년주의’의 뿌리를 영국 빅토리아 시대로 잡고 있다. 빅토리아 시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에서 어린아이(child), 청소년(youth)과 성인(adult) 사회의 확고한 경계는 낮선 것이었다.

“나는 옛 전통 사회가 아동은 물론 청소년에 대해서도 별다른 개념은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동기는 아이가 아직 자립하지 못한 가장 취약한 시기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이어 겨우 신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된 아이는 어른들과 섞여 일과 놀이를 공유했다. 아이는 중세 이전에도 분명 존재했으나 당시에는 발전된 사회에서 중요한 단계로 인정되고 있는 청년기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곧장 어른이 되었다”(Aries, 2003, p. 34).

시민계급은 노동계급에 비해 자녀 교육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더 많이 지니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시민계급 가정의 자녀들은 노동계급 자녀들에 비해 노동 의무의 구속으로부터 유예되는 기간이 장기화된다. 산업화가 촉진되고 공교육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계급에서 출현한 청소년기의 독립 현상은 점차 전(全) 사회 계급으로 확대되어 갔다. 독립된 단계로서의 청소년기가 빅토리아 시대의 중간계급의 범위를 넘어 전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데는 교육 기간의 확장이 큰 영향을 미쳤다(Gillis: 1974). 청소년기가 확장, 연장됨에 따라 학교는 자연스레 독립된 청소년들의 고유한 문화가 개발될 수 있는 현장으로 바뀌었다. 한편으로 학교는 유예된 의무기간을 공유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출신계급의 차이를 넘어서 공동의 문화를 개발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작용한다. 이로부터 청소년은 공교육에 제각 중인 동일한 연령 집단이며, 이들은 공동의 문화를 지닌다는 청소년주의적 신화가 발생한다.

아리에스도 학교교육이라는 장기적 감금과정에서 청소년 개념의 발명이 이뤄졌다고 파악한다(Aries, 2003). 아리에스에 따르면 청소년 연령 집단에 대한 중요한 관습상의 변화는 17세기 말부터 일어났다. 17세기말 학교는 점차 일종의 교육 수단이었던 견습제도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격리되고 다른 아이들과의 접촉을 통해 사회화됨을 의미하였다. 학교를 통해 아이들은 어른들과 분리되었고 청소년은 성인세계로부터 분리되었다. 학교교육은 (광인, 빈민, 매춘부처럼) 장기적인 감금 장치로 기능했다.

### 3. ‘청소년주의’의 부산물: 세대론

청소년 개념은 근대적 발명품이다. 특정 연령집단을 청소년이라 부르는 사회적 관습은 이른바 ‘사춘기’의 발명이라는 과학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근대적 청소년 개념의 등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1780년에서 1840년 사이 의사들은 소년 소녀의 사춘기에 대한 수많은 논문을 써 냈다 (Aries & Duby, 2002: 251). 의사들은 사춘기를 매우 위험한 시기로 간주했다. 그들에게 사춘기에 속한 청소년은 위험한 존재이기에 사춘기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러한 시각을 대표하는 연구로, 청소년 범죄를 연구한 뒤프라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뒤프라는 사춘기 청소년을 고민거리로 묘사하고 있다(앞의 책, p. 252). 그에 따르면 청소년은 타고난 떠돌이다. 옮겨다니는 것에 사로잡힌 청소년들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며 여행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히스테리 환자나 간질환자와 유사한 실종상태를 일으킨다. 그 당시 각종 사회 담론들은 사춘기를 청소년 특유의 병리적 현상으로 구성해냈다. 청소년의 사춘기적 특성은 성인의 심리적 특성과 대비되며 강조되었고, 점차 사춘기의 특성에 대한 철학, 과학, 의학 등의 담론적 그물이 형성 되었다. 이 담론적 그물을 통해 과학의 대상인 청소년은 사춘기를 공유하고 있는 단일 집단으로 규정되

었다. 청소년주의에 입각한 청소년 연구의 주류적 경향은 질풍노도라는 심리학적, 생물학적 발전 단계의 결정론에 입각해 청소년들의 사회 부적응과 성공적인 사회화 과정에서 이탈한 문제 청소년 집단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청소년기를 고유한 특정한 단계로 설정하는 고전 이론들은 대체로 자연 대 문화, 개인 대 사회라는 홉스(Hobbes)와 루소 이래의 전통적인 서양적 이분법의 틀에 입각해 있다. 즉 청소년기는 자연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심리적으로 질풍노도로 드러나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시기이며, 청소년은 문화화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통제의 능력을 소유하는 성년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이분법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성인과 달리 아직 성공적인 사회화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로 조화롭게 통합되지 않은 개인이며, 이로부터 청소년기의 불안감들이 발생한다. 이 같은 청소년의 특성들은 사춘기와 동 연령대 인구가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학교와 연관되어 설명된다. 이런 관행 때문에 학교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모든 문제(학습부진, 탈학교 등)는 연령 변수와 관계있는 사춘기적 특징이 발현된 것으로 간주된다. 사춘기와 관련 있는 연령변수를 청소년 연구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해지는 것도 그런 탓이다.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산업의 증가로 인한 청소년의 동질적 문화 형성을 강조하는 연구경향도 등장하고 있다. 경제 활동으로부터 유예된 집단이라는 특성을 가진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자유시간이 많고 돈을 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왕성한 문화적 소비를 행하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문화상품들이 봇물 터진 듯 쏟아져 나오고, 그 과정 주변의 연구들은 청소년을 단일세대로 간주하고 그 과정을 세밀하게 연구한다. 그리고 다른 세대와 비교할 때 두드러지는 독특한 특징을 강조한다. 전통적 서양적 이분법 틀에 새로운 소비 패턴과 낡은 소비 패턴이라는 하위 요소가 하나 더 없게 된다.

청소년을 동일 연령 집단으로 파악하는 연구들은 세대 간의 갈등을 강조하는가 아니면 세대 통합에 더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출생연령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공통의 가치와 태도가 형성된다는 가정은



공유하고 있다. 성인 연구자들은 관습적으로 청소년을 단일한 집단으로 설정한다.

러쉬코프(Ruschko)의 『카오스의 아이들』은 청소년 세대의 문화에 대한 아주 꼼꼼하고 새로운 보고서다. 이 책을 읽고 난 성인들은 얼마나 성인이 ‘그들’과 다른가를 알게 된다. 러쉬코프는 청소년의 새로운 문화적 관습은 타락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라고 보는 점에서 다른 청소년 연구와는 구별된다. 러쉬코프는 ‘그들’의 새로운 문화를 통제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새로운 문화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 청소년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그들’ 속에서 미래의 모습을 감지한다고 해서 청소년주의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러쉬코프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라는 암묵적 가정을 떨치지 못한다. 르페브르는 청소년주의의 세대론적 집착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어떤 이유로 우리는 자연적 사실 — 세대, 연령별 차이 — 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젊음의 신화와 맺고 있는 외적인 관계에 대해 이렇게 집착하는 것일까?”(Lefevre, 1999: 241).

연령 변수만을 고집하는 청소년 연구는 청소년 내부의 분화경향보다는 성인과 대비되는 그들 공통 특징에만 주목한다. 여기서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청소년들은 성인세계와 구별되는 자신들만의 세계를 고집하는 청소년 동맹을 맺고 있는가? 청소년들이 성인들이 모르는 암묵적 청소년 동맹을 맺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만약 청소년 사이에 비밀스런 동맹이 있다면 왜 청소년 동맹을 맺었던 그들이 성인세계에 진입하면서 연령 변수보다는 계급변수와 젠더변수, 그리고 지역 변수 등에 의한 다차원의 세계로 분화되는가?

청소년을 연령변수로 분류할 수 있는 독자적인 세대로 파악하는 입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대 개념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커처(Kertzer)는 세대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4개의 서로 다른 층위를 제시한다(Kertzer, 1983: 125~149; 박재홍, 2003: 3에서 재인용). 첫째로 세대는 조부모-부모-자녀 세대와 같이 친족계보에서 동일 항렬에 속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세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산다” 등과 같은 언설의 세대 개념이 이 경우에

속한다. 둘째 세대는 또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는 출생 코호트(cohort: 동일한 특성을 지닌 인구 집단)라는 의미를 갖는다. ‘386세대’ 등의 표현이 이 경우에 속한다. 셋째 세대는 ‘청소년 세대’, ‘대학생 세대’ 등과 같이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층위의 세대는 동일한 연령효과(age effect)를 공유하는 집단을 구성한다. 넷째 세대는 ‘전후 세대’와 같이 특정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층위의 세대는 시기효과(period effect)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커처의 분류에 따르면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인 세대는 ‘연령효과’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코호트 효과’와 ‘연령효과’는 동일하지 않다. 생애주기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차이가 무시될 수 있을 경우에만 생애주기를 공유하는 집단은 코호트효과를 발휘하는 코호트 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 동일 연령집단의 세대적 특성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연령효과 즉 한 집단의 특징이 공유하고 있는 생애주기의 단계로 설명해야 할까 아니면 특정 집단의 정체성은 ‘출생 시점에 따른 역사적 사건과 사회화 경험의 차이’로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계급효과 즉 ‘특정한 시기의 상황이나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등을 따져 보아야 한다.

단일 집단으로서의 청소년 집단 표상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만하임의 개념을 빌어보자. 만하임은 ‘세대위치(generation location)’와 ‘실제세대(actual generation)’라는 개념을 구분했다(1952: 290). 세대위치는 인간의 생물학적 리듬에 기반을 둔 사회적 위치다. 세대위치는 실제세대가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범위만을 정할 뿐 세대위치에 의해 실제세대가 자동적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실제세대는 공유된 경험에 기반을 두어 공동운명체로서 강고한 연대감을 갖고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운동) 세력으로 자리 잡을 때 현실화 된다(같은 책, 303). 세대위치 공유자가 공동운명에 참여하여 연대감을 형성하고 세대위치가 실현되면 이들은 실제세대로 전환된다. 세대위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역동적 동요 과정의 사회적 지적 징후에 노출됨으로써

상호간에 구체적 연대감을 형성하고 새로운 상황을 창출하는 힘의 상호작용을 능동적 혹은 수동적으로 경험하면서 실제세대로 발전한다.

세대위치를 실제로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실제세대로 발전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세대위치의 공통성이 발휘하는 힘, 이외는 반대로 작용하는 계층변수(계급, 성, 지역 등)의 힘이 상호 작용하여 정해진다. 계층변수는 ‘생활기회, 위험에의 노출, 기회에의 접근 가능성’을 규제하기 때문에 동일한 세대위치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를 해석하는 방식은 큰 편차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논의의 오랜 가정이었던 ‘청소년주의’는 만하임의 세대구분에 따라 설명해 보면, 세대위치를 공유하고 있는 연령집단에게 실제세대의 특성을 부여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연령을 공유하고 있는 연령집단으로서의 청소년이 실제세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청소년이 과연 실제세대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세대위치를 공유하고 있는 연령집단이 실제세대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힘들에 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 4. 청소년과 세대론의 재검토

동일한 생애주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청소년은 하나의 세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청소년을 하나의 세대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연령효과’가 그 어떤 효과보다 압도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검증해 내야 한다. 대체로 코호트 효과는 연령 효과와 동일하지 않다. 청소년 연구는 동일한 생애주기를 갖고 있는 청소년 집단이 코호트 집단을 형성하는가의 여부 검증에 주목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코호트 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촉발하는 요인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이 단일 코호트 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요인도 있을 수 있다. 학교나 대중매체 등은 청소년을 단일 코호트 집단으로 끌고 가는 힘이지만 부모의 계급, 성차, 지역차 등은 통합의 반대방향으로 끄는 힘으로 작용한다.

## 1) 사회구성의 변화와 청소년기의 확장

사회구성의 변화와 생산방식의 변화는 특정 연령 집단을 청소년이라는 집합적 범주로 파악하는 다른 형성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 규정에 영향을 미친 거시적인 사회구성과 생산방식의 변화는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전(前)산업사회의 연령집단 분류방법, 둘째 산업사회의 연령집단 분류방법, 셋째 후기산업사회의 연령집단 분류방법 등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전산업사회-산업사회-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할수록 연령집단의 분류는 세분된다. 청소년주의는 전산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사회구성의 전환기에 발생한 연령분류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는 후기산업사회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개념 규정하되 ‘청소년주의’가 구축한 동일한 집단이라는 신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의 변화에 주목하며 후기산업사회적 성격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연령집단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래쉬(Lash)와 어리(Urry)는 조직자본주의(organized capitalism)와 탈조직 자본주의의 비교를 통해 탈(혹은 후기)산업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징후를 대비시키고 있다 <표 1>. 래쉬와 어리가 지적하는 탈조직 자본주의의 특징을 후기 산업사회에서 나타는 사회적 징후로 해석할 때, 청소년 개념 규정과 관련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징후는 노동력 구성의 변화와 노동력 구성의 변화에 따른 교육제도, 교육기간의 변화 추이다.

테일러주의적 축적방식이 지배적인 사회는 대량의 미숙련 노동을 필요로 하지만, 후기산업사회적 축적방식이 지배적인 사회는 미숙련 노동보다는 소수의 숙련 노동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학교제도의 변화를 야기시켜 재학기간을 연장시키고, 늘어난 재학기간은 다시 비독립 연령집단을 연장시킨다. 즉 노동으로부터 유예된 청소년기는 후기산업사회에서 확장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학교제도의 변화는 가족구성의 변화를 유발시키고, 가족구성의 변화는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세대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대기축제도 하에서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집단의 지위

<표 1> 조직 자본주의와 탈조직 자본주의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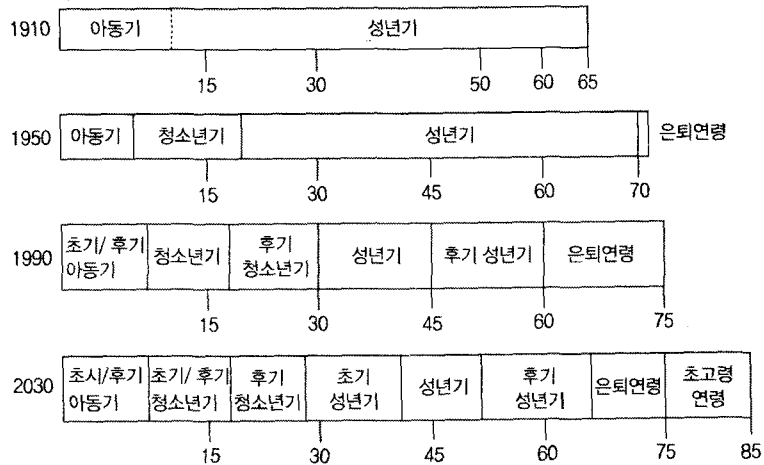
조직 자본주의	탈조직 자본주의
산업금융의 집적-집중 규제된 국내시장의 상업자본	급속히 커져가는 기업권력의 국내 시장집적도 하강 자본국제화의 증진으로 어떤 경우 산업자본과 은행 자본 분리
소유와 통제의 분리 증대 복잡한 관리적 위계의 등장	관리자층의 지속적인 팽창 이들은 계급정치와 뚜렷이 구별되는 개인 및 정치 과제를 설정한다
관리, 과학, 기술 지식인 층 및 중 간계급 관료제 부문의 성장	블루칼라 노동자계급의 상대적 절대적 감소
경제적 제국들의 팽창 해외생산 및 시장 통제	제3세계의 산업화 서비스 부문 특화를 지향하는 중심부 나라들의 경 쟁적인 탈산업화
광공업이 주된 고용의 원천	광공업의 쇠퇴, 조직 서비스업의 등장
강력한 지역적 집중, 광공업부문 의 전문화	영토적 공간적 분업의 확산 및 다양화
공장(노동력) 규모를 늘림으로써 규모의 경제 추구	지리적 분산, 하청의 증대, 범지구적 생산시스템을 통해 공장규모가 줄어든다

출처: Lash & Urry의 책(1987)을 재구성

와 소가족제도의 청소년 연령집단의 지위는 현격하게 다르다. 가족제도의 변화에 상응하는 청소년의 가족 내 지위의 변동은 청소년 문화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공교육 기간의 확대와, 아동 청소년 노동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의 강화에 의해 신체적 성숙이 완료되었으면서도 독립된 삶의 운영의 기초인 경제활동으로부터 유예된 청소년 집단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Hurrelmann, 1999: 51~52) <그림 1>. 이러한 추세는 한국 사회에서도 확인된다.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경제활동으로부터 유예된 연령집단의 숫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높은 대학 진학율은 청소년기의 과대한 확장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학교 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대학생 인구비중이 급증하

<그림 1> 청소년기의 확장



출처: Hurrelmann: 1999, p. 23.

게 되는데, 이는 연령단계로서의 청소년기의 확장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생의 단계에 따른 인간 분류 개념은 과거의 유아기-청소년기-성년기의 3분법에서 벗어나 좀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확장된 청소년기, 즉 후기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인구집단은 분명 전통적인 성인기와 구별되는 청소년기의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청소년기와 구별되는 인구집단으로 자리 잡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확대에 의해 연령단계의 세분화의 필요성이 점점 커져감에 따라 독립된 생의 단계로서의 청소년 단계의 모호성은 동시에 커진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보호’라는 측면에서 유아기의 연령집단과 동등한 취급을 받지만, 신체적 성숙은 ‘보호’ 담론을 과잉의 통제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경제적 활동으로부터 유예되는 기간이 늘어나고, 공교육의 확대에 의해 경제 활동으로부터 유예된 동일연령집단이 소수에서 다수로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 연령집단은 성인의 문화와 구별되는 공통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러한 가능성의 확장은 경제활동 인구의 자유시간과

경제활동 유예 연령집단의 자유시간 차이에서 기인한다. 성인의 자유시간은 노동시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성인들에게 자유시간은 노동력을 재 생산하는 시간의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노동의 의무로부터 유예되어 있는 청소년에게 자유시간은 완전한 자유시간이다. 자유시간을 통해 청소년은 잠재적인 공동의 하위문화를 개발할 수 있는 문화적 소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 2) 문화적 변동과 청소년 개념의 변화

연령집단으로서의 청소년은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위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위치를 공유하고 있다. <표 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호와 통제의 대상인 청소년은 특정 연령대라는 생애주기 상의 공통된 위치라는 변수에 의해 보호의 내용과 범위가 결정되고 자유의 폭이 제한된다. 이러한 연령에 의한 법적 지위의 위치결정은 세대론적 청소년 해석 즉 청소년주의를 설득력 있게 만든다. ‘연령효과’의 발휘에 의해 동일한 연령에 속하는 집단은, ‘연령효과’에 기반을 둔 세대적 ‘공동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공통된 연령 지위는 청소년들의 독자적인 세대문화가 창출되는 힘으로 작용한다. 성인에 의한 ‘통제’ 효과에 공통적으로 노출된 청소년들은 자유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내기보다 ‘또래’와 함께 보내려 하며, 또래 집단과의 공동의 문화창출에 강한 집착을 보인다. 청소년의 또래 집단은 공식적 사회화 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에 특징적인’ 정체성을 형성한다.

청소년은 또래 집단을 통해 다른 세대에 대한 반발심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을 지원받는다. 또래 집단의 영향은 자유시간의 문화적 소비에 큰 영향을 준다. 또래 집단의 영향력은 또래를 구성하고 있는 청소년 개개인의 계급적 차이를 중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소문자 주체인 청소년들은 자유시간을 통한 또래문화를 통해 성인들을, 자신을 억압하는 대문자 주체로 받아들이며, 청소년은 각자 소문자 주체와 대문자 주체 사이의 싸움에서 심리

<표 2>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권리와 금지내용

연령	구분	내용	근거	비고
14세 미만	행위(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9조	
16세미만	고용근로	선원사용금지	선원법 제81조	
16세미만	행위(미성년자)	선서무능력자	형사소송법 제 159조	
여자, 만16세 이상	혼인	(부모 동의 하) 혼인 가능		
17세	권한부여	유언 가능, 병역지원 입대, 주민등록 발급		
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출입금지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이후 출입금지 (단,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자와의 자 동반 또는 동의서 지참시 제외)
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출입금지	비디오물 감상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여자, 18세 미만	고용근로	도덕·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 사용금지	근로기준법 제63조	
18세미만	고용근로	연소자증명서	근로기준법 제64조	호적증명서 및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18세 이상	권한부여	일반운전면허, 공무원 임용		
18세	권한부여	성인물 이용가능	영상 3법	
남자, 만18세 이상	혼인	(부모 동의 하) 혼인 가능		
연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보호	유해업소출입, 약물사용, 유해 매체물 접촉 등	청소년보호법	
연 나이	출입금지	노래연습장	청소년보호법	연소자실에 한하



19세 미만				여 출입허용
연 나이 19세 미만	출입금지	비디오물 감상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무도장	청소년보호법	
연 나이 19세 미만	출입금지	사행행위영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청소년보호법	
연 나이 19세 미만	출입금지	전화통화 매개영업	청소년보호법	통신매개 영업제외
연 나이 19세 미만	사용금지	술, 담배	청소년보호법	
연 나이 19세 미만	고용근로	성(性) 관련 물건	청소년보호법	
연 나이 19세 미만	고용근로	음악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조장물건 등	청소년보호법	
연 나이 19세 미만	고용근로	유흥주점의 유흥종사자	청소년보호법	
연 나이 19세 미만	고용근로	식품접객 영업소에서 의 유흥행위 금지	식품위생법 31조	
20세 미만	범죄처벌	소년	소년법 제2조	
20세 미만	범죄처벌	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법 제32조	
20세 미만	행위(미성년자)	행위무능력자	민법 제5조	
20세	선거권	투표할 권리	선거법	
만20세 이상	혼인	(부모 동의 없이) 혼인 가능		
25세 이상	피선거권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선거법	
25세 이상	피선거권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선거법	
만25세 이상	입양	양친(養親)이 될 자격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40세 이상	피선거권	대통령의 피선거권	선거법	

<표 3> 청소년의 주체 위치(position of subjectivity)

	청소년 세계	↔	성인세계
거시	상상적 공동체 (단일세대로서의 청소년)	↔	거울세계 (성인세계)
	↑ 동일화 - 호명 ↑		
미시	소문자 주체(의존적 주체)	↔	대문자 주체(독립된 주체)

적 위안감을 공동된 지위를 갖고 있는 또래 집단에서 찾는다. 청소년의 주체가 형성되는 동일화(identification) 과정은 타자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반사적 과정인 셈이다. 개별 주체는 독립된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타자의 거울을 만들어내는데, 이 타자의 거울이 성인의 세계이며, 성인의 세계는 이상화되기도 하며 또한 혐오증의 대상이기도 하다.

의존적 주체인 청소년은 독립된 주체인 성인과 잠재적이거나 노골적인 갈등관계를 유지한다. 청소년이 집단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신의 타자인 독립된 주체로 표상되는 성인세계를 거울로 대하면서, 자신들만의 상상적 공동체에 몰입하는 방법이다. 아래의 광고의 예들은 청소년 산업이 청소년을 호명하는 여러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비를 통한 동질성의 확보, 학생 신분 동질성으로 인해 이뤄지는 동일한 소비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하는 동일화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상상적 공동체는 ‘청소년 산업’에 의한 ‘호명’과 ‘청소년 산업’의 ‘호명’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동일화(identification) 하는 과정에 의해 구성된다. 청소년 세계를 성인세계의 거울로 파악할 경우, 혹은 그 역으로 사고할 경우, 청소년들이 만들어내는 하위 문화적 상상적 공동체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공교육이 확대되고 재학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그리고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청소년 산업이 집단적 정체성 형성에 발휘하는 힘은 더욱 커져간다.



### 3) 분할요인과 청소년

학교 기간이 연장되고, 성인 범주로의 진입이 더디게 발생하며, 대중매체 등을 통한 또래 문화의 확산, 그로 인한 자기 정체성의 구축 등은 청소년이 한 범주에 넣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은폐한다. 학교와 대중매체 등은 세대적 청소년 해석 혹은 청소년주의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동한다. 다른 한편으로 세대적 청소년 해석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다른 변수도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세대적 세계 해석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수로 부모세대의 계급과 청소년의 사회적 성(Gender), 거주 지역에 의한 문화적 차이 등을 들고 있다.

급진적 하위문화에 대한 윌리스와 헵디지의 연구는 동일 연령 집단 내부의 계급적 요인의 관찰에 주목했다(Willis, 1990; Hebdige, 1998). 급진적 하위문화론에 따르면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의 공통의 심리학적 특성에서 유래한 공통의 문화가 아니라, 청소년의 출신계급에 따라 분절되어 있다. 청소년을 잠재적으로 하나의 하위문화로 바라보는 입장은 청소년 집단을 일종의 사회

세대계급으로 바라보지만 잠재적 하위문화는 상당히 느슨한 유대와 연결망, 그리고 상상적 공동체적 결합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잠재적 하위문화는 급진적 하위문화(계급 구속적)의 영향력과 충돌하며, 이는 청소년이라는 연령집단을 분절시켜 한 연령 집단 내부에 다양한 분파를 산출해낸다.

<표 4> 청소년집단의 분절

통합요인 (상상적 공동체)	↔	개인	↔	분열요인 (계급과 사회적 성)
세대로서의 청소년	↔	집합체	↔	하위 세대단위의 분할

보통 청소년주의적 입장에 의해 청소년의 공동문화(common culture)의 대표적인 예로 해석되는 또래문화 형성 또한 연령변수가 발휘되는 결과라고만 보기는 힘들다. 각각의 또래 집단에는 고유한 선발의 기준이 있다. 또래 집단이 형성될 때 각각의 청소년이 갖고 있는 가족계급의 조건들이 직접적으로 고려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래 집단 선발의 중요 기준들은 각 사회계급의 독특한 아비투스(Habitus)와 상관관계가 있다. 또래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청소년들은 가족환경을 통해 아비투스를 물려받고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간계급 출신의 청소년들과 상층계급 출신의 청소년, 하층계급 출신의 청소년 사이에는 분명한 아비투스의 차이가 있다. 또한 한 지역 내의 주거계층화의 심화와 지역격차의 강화에 의해 또래집단의 형성에는 불가피하게 계급적 변수의 힘이 스며들어 있다.

청소년은 연령변수에 의해서도, 계급변수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는다. 연령변수를 독립변수, 계급변수를 종속변수로 파악하거나, 계급변수를 독립변수 연령변수를 종속변수를 파악하는 방식은 모두 틀렸다. 연령변수와 계급변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연령변수와 계급변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의 상황을 규정하는 두 가지 경쟁적인 힘이다. 독립적인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성인과 달리, 청소년의 사회적 계급 상황은

부모의 사회적 계급 상황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을 계급적으로 분할시키는 요인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만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부모의 사회계급 상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분할할 잠재력을 지닌 다른 사회, 문화적 요인들을 찾아내고, 그에 맞춘 청소년 하위 문화연구라는 경험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 5. 결론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문제, 특히 청소년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오랫동안 안 어떤 편견이 유지되어 왔다. 그 편견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하나는 청소년 세대는 항상 기성세대와의 대당관계 속에서 구별되어 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세대문제는 특정한 사회현상이나 사건에 의해 그 가치 판단이 일방적으로 내려져 왔다는 점이다. 1990년대 초반 신세대라는 기표가 등장한 이래 대부분의 주류담론들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라는 이분법 속에서 청소년들을 구별 지었다. 당시 신세대를 규정하는 대중적인 슬로건으로 “어른들은 몰라요”나 “네 멋대로 해라”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정체성이 항상 부모 혹은 기성이라는 대당 속에서만 구별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 대한 이분법은 세대문제를 항상 일시적인 현상이나 사건의 결과에 대입하는 해석을 당연시하기도 했다. 가령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 이후에 모든 10대들은 새로운 감각과 자유분방함을 가진 주체들로 구분되었고, 1996년 학교폭력조직인 ‘일진회’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모두 비행과 일탈을 범하는 무서운 주체로 분류되었다. 2002년 월드컵과 대선 때는 참여와 열정의 세대로 명명되더니, 청년실업과 청년이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작년에는 낙약한 주체, 반애국적인 주체로 명명된다. 그래서 세대에 대한 지배 담론은 항상 ‘신세대와 구세대’라는 연령별 이분법과 ‘좋은

과 나뉘'이라는 가치론적인 이분법 속에서 구성되었다. “축 처진 5060, 기세 등등한 2030이라는 도식”이 자명하게 유포되거나, “보수언론이 대변하는 기성질서와 그것에 의해 틀 지워진 세대론”(황오덕, 2003: 236)은 사회의 모든 토착들을 세대문제로 환원하려는 일종의 블랙홀과 같다.

결과적으로 청년세대를 명명하는 기표들은 이러한 이분법적인 일반화의 오류를 그대로 차용하면서 주체형성의 사회적 과정을 단순화시킨다. 가령 신세대에서 X세대, N세대, P세대에 이르기까지 세대의 정체성을 명명하는 기표들은 세대의 복잡한 지형을 손쉽게 성격규정하려 든다. 80년대 이후 미디어나 광고회사, 보험회사, 통신업체들이 고안해냈던 신세대 기표들 속에 존재하는 의미화과정은 롤랑 바르트의 말을 빌리자면, 일종의 ‘신화’로서 하나의 기표로 환원될 수 없는 이들의 의미생산을 자명한 메시지로 규정해 버린다.

물론 X세대나 N세대 등의 세대를 규정하는 새로운 기표들이 달라진 사회 구조나 문화 환경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그러한 기표들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 기표가 세대의 어떤 특성을 함축하려는지 대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기표가 표상하려는 의미로는 일반화시킬 수 없는 청년 세대들의 물질적 과정이나 주체형성과정의 수많은 결절점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복합적인 지형들은 하나의 기표로는 표상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기표들의 구별 짓기가 아니라, 기표의 의미가 발생하는 사건의 사회적 과정을 구별 짓는 것이다.

세대의 구별 짓기는 겉으로 보면 단순하게 보인다. 그것은 항상 부모세대, 기성세대와의 구별 짓기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세대의 구별 짓기가 벌어지는 곳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그 내부로부터 구별 지으려 한다. 청소년의 구별 짓기는 다시 연령별로 세밀하게 구분되기도 하고, 계급적, 지역적, 성차, 문화적 취향에 따라 구별되기도 한다(이동연, 2002: 280).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가치 혹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세대문제이다. 그것은 연령이나 가치관의 차이의 문제보다는 사회의 세력관계, 주체들 간의 모순관계의 문제이다.

## Ⅰ 참고문헌

- 박재홍 (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37권 3호.
- 이동연 (2002). 세대 문화를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 『대중문화연구와 문화비평』. 문화과학사.
- 황호덕 (2003). 청년 그 이상의 이념을 생각한다. 『당대비평』, 2003년 봄호.
- Aries, P. & Georges D., 전수연 역 (2002). 『사생활의 역사 4』. 서울: 새물결.
- Aries, P., 문지영 역 (2003). 『아동의 탄생』. 서울: 새물결.
- Buckingham, D. (2000). *After the Death of Childhood: Growing Up in the Age of Electronic Media*. London: Polity Press(정현선 역. 『전자매체 시대의 아이들』. 우리교육. 2004).
- Clarke, J., Hall, S., Jefferson, T. & Roberts, B. (1996). Subcultures, Cultures and Calss, in: Hall S. and Jefferson, T. (ed.), *Resistance through Ritual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ohen, P. (1997). *Rethinking the Youth Question. Education, Labour and Cultural Studies*, Hampshire, Macmillan.
- Coleman, J. S. (1961). The Adolescent Society. *The Social Life of the Teenager and its impact on Education*. New York: Free Press of Glencoe.
- Foucault, M., 김부용 역 (1991). 『광기의 역사』. 서울: 인간사랑.
- \_\_\_\_\_, 오생근 역 (1994). 『감시와 처벌』. 서울: 나남출판.
- \_\_\_\_\_, 이규현 역 (1994). 『성의 역사. 제 1권 앞의 역사』. 서울: 나남출판.
- Garatt, D. (1997). Youth Cultures and Sub-Cultures. in: Jeremy Roche and Stanley Tucker (ed.), *Youth in Society*. London: Sage.
- Gillis, J. R. (1974). *Youth and History: Tradition and Change in European Age Relations 1770 - Present*. New York: Academic Press.
- Griffin, C. (1997). Representations of the Young, in: Jeremy Roche and Stanley Tucker(ed.), *Youth in Society*. London: Sage.
- Hall, G. S. (1904). *Adolescence: Its Psychology and Its Relation to Physiology, Anthropology, Sociology, Sex, Crime, Religion and Education*. New York: D. Appleton & Co.
- Hall, S. (ed.) (1993). *Resistance through rituals: youth subculture in post-war-Britain*. London

- and New York: Routledge, London.
- Hebdige, D., 이동연 역 (1998). 『하위문화: 스타일의 의미』, 서울: 현실문화연구.
- Hurrelmann, K. (1999). *Lebensphase Jugend*. Weinheim, Juventa.
- Jones, G. & Claire W. (1992). *Youth, Family and Citizenship*. London: Open University Press.
- Lash, S. & John U. (1987). *The end of Organized Capitalism*. Cambridge: Polity.
- Lefebvre, H., 이종민 역 (1999). 『모더니티 입문』, 서울: 동문선.
- Livingstone, S. (2002). *Young People and New Media*. London, Sage.
- Mannheim, K.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in: Karl Mannheim,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Oxford University Press.
- Murdock, G. & Robin M. (1996). Consciousness of Class and Consciousness of Generation, in: Stuart Hall and Tony Jefferson(ed.), *Resistance through ritual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Rogers, R. S. (1997). The Making and Moulding of Modern Youth: A short history, in: Jeremy Roche and Stanley Tucker(ed.), *Youth in Society*. London: Sage.
- Rushkoff, D. (1996). *Playing the Future: How Kids' Culture Can Teach Ous to Thrive in an Age of Chaos*. New York: Harper Collins. 김성기·김수정 역 (1997). 『카오스의 아이들』. 서울: 민음사.
- Schärfers, B. (1998). *Soziologie des Jugendalters*. Leske + Budrich, Opladen.
- Tabscott, D. (1998). *Growing Up Digital: The Rise of the Net Generation*. New York: McGraw Hill. 허운나 외 역 (1999).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서울: 물푸레.
- Taylor, I. & Wall, D. (1976). Beyond the Skinheads, in G. Mungham and G. Pearson(eds), *Working Class Youth Culture*. Routledge & Kegan Paul.
- Thomson, E. P., 나종일 외 역 (2000). 『영국노동계급의 형성』. 서울: 창작과 비평.
- Veyne, P. (ed.). 주명철·전수연 역(2002). 『사생활의 역사 I』. 서울: 새물결.
- Willis, P. (1990). *Common Culture*. London: Open University Press.

(최초 투고 2006.9.1, 최종 원고 제출 2006.10.25)



## The Myth of Youthism

Yong-Jin Won

Dept. of Mass Comm., Sogang Univ.

Dong-Yeon Lee

Dept. of Traditional Arts, KNUA

Myung-Woo Nho

Dept. of Sociology, Aju Univ.

'Youthism' is pushing the youth research field into a trap of binarism fallacy. It tends to divide the whole population into the young and the old, and further gives an acceleration toward moving the division into the discursive realm of generation gap. The discursive transference is not taking place without any reasonable grounds. The series of discourse is based on two significant phenomena: changes in media background and longer schooling than ever before.

Media environment overriding youth culture binds the young in a group and makes them enjoy homogeneous cultural genres. And schooling also seems to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youth to have same cultural menus regardless of region, social strata, cultural background. But we need to recognize that after getting into the adulthood, they are not existing in the form of alliance. The youth are not in a homogeneous group. Neither are their culture. The youth are consisted of a variety of groups along such variables as gender, class of their parents. They tend to make distinction not only from the older generation but from the other peer groups. Unless avoiding the trap of youthism, we are blamed for closing eyes to the youth's desire to be distinctive among themselves. Youthism seems to be an active myth even in our academic society.

Key words: youthism, generation, mass media, schooling